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조지훈*,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wlvlgns92@gmail.com
**e-mail: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need of a regular(licensed) teacher in applied music

Ji-Hoon Jo*,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Graduate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실용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실용음악을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학원과 대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실용음악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고등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용음악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과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다.

1. 서 론

한국의 실용음악은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내 대중의 관심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K-POP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유행되어지고 있다. 여러 아티스트들이 세계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가수 싸이가 K-POP을 알렸으며 BTS(방탄소년단)가 전 세계에 K-POP을 유행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진로를 음악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실용음악 학원들이 전국에 곳곳마다 생겨났고, 대학교에는 실용음악과가 많이 생겨났으며, 경쟁률이 500:1에 가까운 대학교들도 생겼다. 고등학교에는 방과 후 음악수업이 많이 설치되었고, 예술고등학교에도 실용음악과들이 많이 생겨났다. 더 나아가 현재에는 실용음악 특성화 고등학교가 나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교육기관은 많이 생겨났지만,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부족하여 교육기관에 실

용음악 전문 교육자가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전공한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실용음악 교육기관에 대해 분석하고 정교사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2. 본 론

한국에서 실용음악 교육기관은 2000년대 들어서 각광받기 시작한다. 2009년 7월 M.net에서 방송한 슈퍼스타K가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뒤따라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실용음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용음악 교육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 실용음악 교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실용음악학원, 고등학교, 대학교 가 있다. 시작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1989년 최초로 실용음악과를 개설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후 전국 대학교에 60여개 정도의 학과가 개설1)이 되었으며 500:1에 가까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대학

교도 나왔다. 이후 전국적으로 실용음악학원들이 개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1400개 이상의 학원이 개원¹⁾을 하였다. 나아가 고등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점차 생기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실용음악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생기고 있는 추세다.

2-1 실용음악계열 자격증의 현황과 실기교사자격증
실용음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실용음악 교육기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 분야에는 많은 민간자격증 만이 있을 뿐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실용음악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 후 졸업을 하면 '실기교사자격증'이라는 것이 발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소수 몇개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직과정이 폐지되었고, 검정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아 많은 실용음악과 졸업생들과 전공자들은 이 자격증마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뿐이다.

2-2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의 실태와 정교사 자격증의 필요성
실용음악이 국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다른 예체능인 미술과 체육 그리고 클래식 음악처럼 실용음악을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 학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고, 지금에 이르러 현재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의 수는 대략 40여개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에는 실용음악을 전공한 음악 정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이 대부분이며, 현재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직책이 정교사가 아닌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들이다. 클래식이나 국악 관련 학과가 아닌, 실용음악 관련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 전공자가 아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정교사가 많은 이유는 현재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실용음악이 아닌 '음악'으로 나오며 이는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을 전공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교에서

발급하기 때문이다.

2-3 사립 고등학교 교사 응시자격과 정교사 자격증 발급 방법

현재 사립 고등학교 교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사자격증 보유자 또는 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채용과목이 동일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상치과목 교사 채용 불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³⁾ 위에서 나오는 교사자격증에는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이 되며 정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며 자격기준은 다음 보기와 같다.

<보기 1-1> 정교사 1급 자격기준

- “①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④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⁴⁾

정교사 1급 자격증은 위 표에 4번 항목을 제외하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자격기준이 생긴다.

<보기 1-2> 정교사 2급 자격기준

- “①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③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 ④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한 사람
- ⑤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 ⑥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3) 교육부 :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4) [네이버 지식백과] 정교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1) 대학알리미 : 2019학년도 공시정보 검색어 실용음악
2)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 : 검색어 실용음악

- 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⑦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 ⑧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⁵⁾

위 표에 나와 있는 정교사 2급 자격증 자격기준 중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교육대학원을 진학하여 졸업해서 취득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내 교육대학원 중 음악교육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은 36개⁶⁾가 있지만, 이들 중 실용음악교육 대학원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교사 2급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 대학원이다. 더불어서 1개의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들은 실용음악이 아닌 클래식 음악과 국악을 다시 공부를 해서 입학할 해야 한다.

3. 결 론

본 연구는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용음악을 중등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실용음악 전공자들의 필요성과 정교사 2급 자격증의 발급 현황 그리고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클래식 음악이 아닌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실용음악을 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많아졌지만, 이러한 교육기관의 음악교과를 대표하는 교육자가 실용음악 전공자가 아닌 다른 음악의 전공자라는 점과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음악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실용음악 정교사 2급 자격증의 발급은 늘어가는 실

용음악 중등교육기관의 진학을 희망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받을 교육의 질 향상과 나아가 향후 국내 실용음악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점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2019학년도 공시정보 : 실용음악
- [2]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 : 실용음악
- [3] 교육부 :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 [4] 교육부 : 2017교원양성기관현황 3.4.3 교육대학원 전공별·학교별 설치현황
- [5] [네이버 지식백과] 정교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5) [네이버 지식백과] 정교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6) 교육부 : 2017교원양성기관현황 3.4.3 교육대학원 전공별·학교별 설치현황